



“번뇌 망념 없애는 실천행이 약사신앙”

대구 동화사서 ‘동아시아 약사신앙학회’ 개최

한국 약사신앙의 중심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최초로 동아시아 약사신앙을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5월 29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美플립비아대 불교·동아시아종교센터와 국제학술세미나 ‘동아시아 약사신앙학회’를 공동기획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과 △제1부 민간신앙과 약사불 △제2부 치병과 의약과 △제3부 약사여래 도상의 변천 △제4부 역사속에서의 약사신앙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역사적으로 약사여래신앙은 다양한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며 “약사여래 신앙이 중생과 어떻게 소통하고 당면한 그들의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美플립비아대 불교·동아시아종교센터 공동소장 유춘광(Chun-fang Yu) 교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사는 현대인에게 약사여래의 지비심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약사신앙 연구가 불교연구 출판사키고 동화사와 플립비아대의 지속적인 연구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종명 “한, 약사 기록에 쏠려”

“갓바위 부처님을 약사불로 보는 견해는 190년대 기록에 의한 약사신앙의 결과다. 이는 현대 한국승단의 세속화 산물로 해석 가능하다.”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동아시아 약사신앙학회’에서 주제발표 ‘현대 한국의 갓바위 약사불 신앙’에서 “약사불로서 갓바위는 1960년대 초 몇몇 스님들의 추정적 산물이었다”며 “갓바위 신도들의 목적은 기록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자들의 병·약에 대한 이해 부족, 스님들의 물질적 관심, 재가자들의 기록이 주 원인”이라며 스님들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김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을 강조했지만 현재 한국 승단은 사찰 재원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계는 기복종교로서 불교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가신자들이 하여금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버나드 포 교수는 “초기불교 위주 주장으로 불교 전면에 따른 기록신앙도 하나의 불교 형태로 모든 종교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야오 총신 “中 약사승배 등 현세 구제”

야오 총신 중국 손앗센 대 교수는 ‘중세 중국에서의 약사신앙 함의’에서 “중세 중국인들의 약사불의 현세 구제 역할을 중시했다”며 “약사신앙은 단순히 치유와 치병이 아닌 말자 천도와 서방정토 왕생의 염원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오 총신 교수는 “중국 약사정토신앙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그 근본 원인이 현세 이익 추구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스루 포모나 대 교수는 ‘5-6세기 중국에서의 민간신앙’에서 “5세기 약사신앙의 유행은 도교의 치유수행 등과도 습합돼 나타난다”며 “이러한 신앙 보급에 황실이 후원하기도 하는 등 국가 기반 신앙으로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사무엘 모스 “日 약사신앙 정신치유 주목”

사무엘 모스 엠허스트 칼리지 교수는 ‘헤이안·신라 시대 약사불 입상을 통한 신도와 불교의 습합’에서 “8-9세기 일본 인들은 신라의 군사적 위협에 늘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이를 위한 방어책으로 토착 종교 중 유체적·정신적 질병 뿐만 아니라 약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하치만을 주로 믿게 된다. 이러한 하치만이 불교와 닿아 일본에서 약사여래신앙으로 본격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엘 모스 교수는 “이는 끊임없는 수용을 통한 종교의 변화를 의미한다. 신라 약사여래를 일본인들이 자신의 신앙 대상으로 삼은 것이 그 예다”고 말했다.

맥스 모어만 버나드칼리지 교수는 ‘북과와 목욕물, 일본의 온천과 약사신앙’에서 “8세기부터 일본 온천은 종교적 배경의 필수부분이 됐으며 12세기에는 약사여래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질병과 더러움은 곧 번뇌, 목욕을 통한 안락은 해탈로서 약사여래신앙이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 정화까지 확장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지원사업회, 지원사업 공모

박사학위 논문·저술 번역 2개 분야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제10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관련 번역 지원 등 2개다.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취득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 논문 수정, 보완 후 응모도 가능하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번역 후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또 불교관련 번역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학자에게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선정될 경우 본 법원에서 출판지원비를 보조해 도서출판 CIR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24~29일까지로 9월 중 심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011)9789-3083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중국 선종’ 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6월 8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2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중국 선종의 문화와 그 사상’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위산과 양산의 선사사’ △

김호규 동국대 연구교수의 ‘백과공선의 조동오위 해석과 그 특징’ △황금연 동국대 교수의 ‘운문록을 통해 본 운문의 선기와 접화’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송대의 시대정신과 선종 종파의 부침’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HK연구단, ‘글로벌리티’ 발표회

6월 7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동국대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6월 7일 오전 10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2층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글로벌리티의 한국성: 고유성의 전개’라는 주제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호규 HK연구교수의 ‘삼국시대 설화를 통해 본 신의의 유형과 그 불교적 기능’ △정영식 HK연

구교수의 ‘전란기에 있어서의 불교식 위령과 국가’ △박광연 HK연구교수의 ‘동아시아의 왕즉불(王即佛) 전통과 미륵불공예’ △강호선 HK연구교수의 ‘조선 태조 4년 국형수축재의 설행과 그 의미’ △이지람 HK연구교수의 ‘신라 사원노비의 발생과 사신(捨身)’ △박서연 HK연구교수의 ‘화엄경문단에 나타난 의상의 화엄사상 연구’ 등이 발표된다. (02)6713-5172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 이대로...’, ‘불교평론’ 53호 특집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최근 ‘불교평론’ 여름호(통권 53호)를 펴냈다.

‘불교의례 이대로 좋은가’를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종교에서 의례의 의미와 기능(송현주) △불교의례의 발생과 동아시아적 전개(문은식) △한국불교의례의 형성과정(이성운) △의례 내용은 교리와 합치하는가(태경 스님) △불교의

례 한글화 원칙과 지향점(이도흠) △근대 불교 의례개혁론과 불교대중화(한상길) △불교의례의 문제와 개선방향(명법 스님) 등의 논문이 게재됐다.

또 논단에 △협동조합 운동과 불교(유정길) △인도불교 흥망의 교훈(조준호)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티벳장경연구, ‘찬드라 키르티’ 세미나

티벳장경연구(소장 윤영혜)는 6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글로벌 에이스홀에서 ‘찬드라 키르티의 임종론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계학술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인도 불교논증연구소

가조 스님의 ‘인도불교에서 임종론이 가지는 철학적 가치와 의의’ △김현구 전남대 교수의 ‘찬드라 키르티의 유식 비판’ △텐진 남가 티벳장경연구소 연구초빙교수의 ‘귀류는종파의 8가지 특징’ 등이 발표된다. (054)770-2893

노덕현 기자

“갓바위 부처님, 미륵·약사신앙의 상징”

김상현 교수, 28일 선본사 학술대회서 강조

선본사와 갓바위 부처가 팔공산에 형성된 미륵·약사신앙의 변천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5월 28일 열린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학술대회에서 ‘통일신라시대 팔공산의 불교신앙’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팔공산에 형성된 불교 신앙에 대해 살폈다.

먼저 김 교수는 팔공산이 신라의 오악 중 부악으로 불렸던 것에 주목했다. 팔공산은 신라 왕실의 원향 동화사가 있고, 화엄 심찰 중 하나인 미리사와 교종 사찰 부인사, 지장신앙 도량 지장사가 자리하는

등 다양한 불교신앙들이 존재하는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팔공산의 불교성지로서의 천년 전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 부처)’이 모셔진 선본사는 우리나라 최고 기도처”라며 “관봉 석조여래좌상’이 언제부터 예경의 대상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산정(山頂)부처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륵불과 약사불로 나누는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1930년대까지

는 미륵불로 인식되다가 1960년대 이후 약사불로 명명되기 시작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34년 편찬된 《화성》에 따르면 사람들이 ‘갓바위 부처’를 미륵불로 부르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1962년 동아일보 기사에 약사불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갓바위 부처’는 1930년대까지 미륵불로 불리다가 1960년대 약사불로 호칭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교수

이러 “존명이 시대에 달라지는 것은 이 불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신앙심이 투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동수 외 6명 학자 갓바위 종합 고찰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팔공산 동쪽(東麓)의 지리환경과 관봉 석조여래좌상 및 선본사의 입지특성(한동수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의 양식 특징과 조성배경(김춘실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팔공산 선본사 석조문화재에 대한 고찰(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 △조각승 청화와 경산 선본사의 목조아미타불좌상(송은식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선본사 관봉 석조여래좌상 및 삼층석탑에 대한 암질 분석(좌용주 경상대 지구과학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신종일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